제10강 이데아와 시뮬라크르 I

(1교시)

소피스트들의 분류라는, 즉 진정한 지식인과 사이비 지식인의 분류라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했던 대화편은 어느새 본격적인 철학적 논의로 넘어간다. 지금까지의 소피스트론은 소피스트들에 대한 플라톤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것을 논리 – 그러나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논리 – 적으로 구성한 것이었으나, 이제 플라톤은 자신의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철학적인 근거를 찾게 된다. 플라톤이 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가치론적 논의, 즉 "진정한"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는 논의는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인성론적(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식론적(참/거짓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존재론적(있음과 없음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논의를 요청하게 된다. 이제 대화편은 '가짜'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게 된다.

시뮬라크르의 문제

소피스트들을 여러 각도에서 규정했던 플라톤은 이제 변화무쌍한 소피스트들에게서 가장 본질적인 하나의 측면을 포착하려 한다. 이것은 우리를 시뮬라크르의 문제로 데려간다.
플라톤은 지금까지 제시해 온 여러 규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논박을 일삼는 자(ἀντιλογικός)'를 든다. 소피스트들은 어떤 형태로든 언어, 지식, 교육, … 등에 관련되는 존재들이다. 소피스트들의 규정에는 도덕적 측면과 인식론적 측면이 혼합되어 있었으나, 이제 논의의 초점은 인식론적 맥락에 맞추어진다.

(2교시)

소피스트들은 대단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보인다. 즉 소피스트는 '소피스트'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지만 대단히 여러 종류의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 신뢰할 만하지 못한 '모습(τὸ φάντασμα)'을 가진 존재이다. 여기에 등장한 'τὸ φάντασμα'는 'ἡ σιμυλακρα'와 동의어로서 현대에 들어와 '시뮬라크르(simulacre)'로 표기된다. 'τὸ φάντασμα'는 오늘날 'le phantasme'(또는 'le fantasme')이라는 말로 남아 있다. 플라톤은 시뮬라크르를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우선 소피스트 자체가 시뮬라크르임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다. 즉 소피스트들은 수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존재, 즉 가짜=시뮬라크르인 것이다. 여기에서 시뮬라크르라는 말은 '외관(外觀)' 또는 '(거짓된) 이미지'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소피스트들은 가짜이다. 그렇다면 가짜란 무엇인가?

www.artnstudy.com

소피스트들은 모든 종류의 대상들에 관한 지식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일반인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신성한 것들. 둘째,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들. 셋째, 법을 비롯한 정치에 관련되는 모든 일들. 즉 소피스트들은 형이상학적인 존재들, 자연에 속하는 여러 존재들, 그리고 폴리스에서의 삶에 관련된 여러 존재들, 요컨대 세계의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있는 듯이 보인다. 소피스트들의 일차적 외관은 박식(博識)에 있다. 그러나 이들의 박식은 정확히 말해 이 모든 것들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중 하나를 아는 사람들을 **모두** 논박해버리는데 있다.(『에우튀데모스』 272A-B) 그래서 소피스트들은 "반대로 말하는 자"이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단지 논박의 요령만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든 논박해버리는 자, 그래서 잘못 보면 마치 무엇이든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자(『고르기아스』 459A-C), 플라톤이 생각하는 소피스트는 정확히 이런 자이다.

www.artnstudy.com